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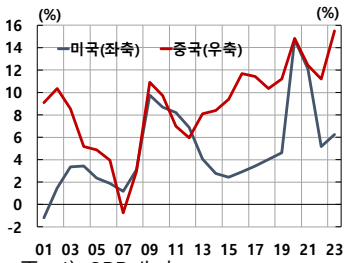
2.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조사국 국제종합팀·미국유럽경제팀·중국경제팀)

1. 최근 미국과 중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특징①] 먼저 양국 모두 민간소비 지원 강화, 인프라투자 확대 등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징②] 또한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 및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이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징③] 한편 최근 중국의 성장 이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대조를 보이며, 양국간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재정지출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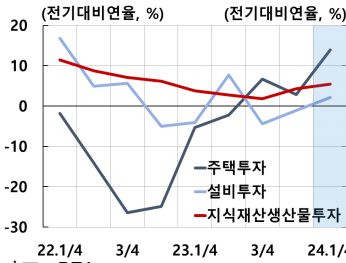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



주: 1) GDP대비
자료: CBO, 중국 국가통계국 및 재정부

미국, 주택·설비·지재물 투자 증가

<미국 주요 부문별 투자>



자료: BEA

중국, 수출가격 하락·물량 상승

<중국 수출물량·수출단가지수>



주: 1) 계절조정 기준
자료: Haver Analytics

2. 양국의 이러한 성장흐름은 글로벌 성장과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통화긴축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pivot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위한 노력은 미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글로벌 분절화를 통해 세계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고정자산투자를 과거 부동산투자 중심에서 친환경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어 향후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교역 상대국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

3. 금년중 G2경제는 재정·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對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